



# 신학은 영성이요, 영성은 신학이다!

“그대가 신학자라면 진정으로 기도할 것이요,  
그대가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그대는 신학자이다.”(Evagrius)

신학은 영성이다. 하나님을 말함은 하나님에 참여함이요, 신격화이다. 영성 없는 신학은 메마르고, 신학 없는 영성은 공허하다. 삼위일체론을 확립한 아타나시우스(Athanasius)와 갑파도키아(the Cappadocian) 교부들이 영성에 있어서도 깊고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것이 이것을 잘 대변한다. 그러나 서방 신학은 언제부터인가 신학과 영성의 분리 현상에 시달려왔다. 특히 신학이 ‘대학교’에서 자리를 잡으면서부터 이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현재 서방교회가 영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에 대한 반발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학이 아닌 영성은 그 근거가 약하며, 신학이 곧 영성이어야 건강할 것이다.

영성에 대한 일방적 관심은 알게 모르게 이원론에 기초할 수 있다. 이원론이 항상 비난과 경계와 극복의 대상이지만, 그 배경과 의도는 누구라도 쉽게 거부할 수 없다. 이원론의 폭로와 극복은 신앙이 부여받은 큰 과제이다. 신적(神的) 세계와 물질계, 또는 신과 인간은 어차피 이원적 존재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면 범신론을 피할 수밖에 없다. 이원론의 오류에는 쉽게 빠질 수 있지만, 범신론은 누구나 추구하는 대안은 아니다. 우리는 이원론의 관점에서 신학과 영성의 관계를 풀어보려고 한다.

## 1. 이원론

교회사에서 영향을 미친 이원론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원적 존재 구조를 가치 평가적으로 접근하면서 인간의 구조, 특히 육체와 육체를 담고 있는 세계를 경시하는 특징을 지닌다. 어떤 연유에서든 육체가 영혼을 감금하고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동족(同族)관계에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원론은 사교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려는 실천적인 관심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감각과 억측이 난무하는 덧없는 세계에 산다. 그러나 그의 영혼만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고등한 참(眞) 세계에 속한다. 이 세계와의 동족관계를 재(!) 획득하기 위해서 영혼은 자기를 세계에서 정화해야 한다. 이 세계에 대해서는 죽고, 죽음 이후에나 누리는 생명을 지금 살아야 한다. 정화에는 도덕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이 있다. 도덕적 정화는 혼이 육체를 초월하게 하며, 육체는 모든 정염을 중단한다. 지적 정화 또는 변증법은 영혼을 추상적인 생각에 몰두하게 한다. 즉 영혼은 감각계에서 떠나 영원한 실재계에 몰두한다. 이때야 비로소 영혼은 관상(觀想)에 이른다. 그러면 실재계는 단순하게 나타난다. 관상은 엑스타시(ecstasy; 무아경?)와 같은 즉각적 체험이다. 자기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며, 곧 귀향이다. 달리 말하면, 영혼이 자기 확인, 곧 상승은 자기 퇴수이다.

### 1) 플라톤의 이원론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진리와 이데아를 관상한다. 그러나 혼은 출생하여 육체 속에 있으면서 이데아를 망각하고 산다. 즉 변화와 환상의 세계에 빠진다. 혼은 한 번 알았던 이데아를 상기함으로 참 지식(episteme, noesis)을 얻는다. 그러나 세계에서는 지식이 불가능하다. 지식의 대상은 불변하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감각으로 얻는 바는 지식이 아니라 견해(믿음; doxa)에 불과하다. 진리와 미의 참 지식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철학의 대상이다. 참 지식을 얻는 일은 이 세계에서 불가능하니 철학은 곧 죽음의 준비이다. 지식은 대상적 지식이 아니고 그 대상과의 동일시 또는 참여이기 때문이다.

혼은 이데아계와 동족(syngeneia)이다. 혼이 이데아계를 찾는 것은 귀향이다. 이 귀향은 관상(theoria)으로 이루어진다. 혼이 그릇된 현실로부터 벗어나 참 현실을 향하여 점점 참여하는 것이 혼의 상승이다. 이것이 곧 교육(paideia)이다. 도덕적이고 정신적 정화 과정이다. 도덕적 정화는 혼이 육체와 연합한 연고 때문인데, 도덕적 덕목, 곧 정의, 분별, 절제, 용기 등의 실천이다. 혼 또는 혼의 합리적 부분인 정신(nous)이 혼의 욕망적 부분을 통제할 때 나오는 덕목이다. 이 위에 정신적 정화는 혼이 관상(theoria; noesis)에 몰두함이다. 이를 변증법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수학과 이데아의 이데아인 선(善)의 이데아를 추구하는 변증법 자체가 있다. 수학과 변증법은 감각의 경험을 추상화하여 정신(nous)을 일깨워서 실체(ousia)를 직시하게 한다. 이것이 관조의 목적이다. 많은 감각적 대상으로부터 유일한 실체로 나아간다. 그러나 혼은 이 선의 이데아를 단지 접촉하거나 연합할 뿐 이 자체는 불가지적이다. 따라서 이 관상은 획득되지 않고, 혼에 갑자기 임하고 계시된다. 말하자면 엑스타시이다. 자기에게서 빠져나와 선의 이데아와 혼연일체가 됨이다. 이 궁극적인 관상은 혼에게 임하며, 인간은 이를 대비할 뿐이다. 이것이 플라톤의 관상론이 지닌 종교적 측면이다. 관상에서 혼은 신적 세계와 동족임을 체험한다. 그러나 세계를 거부함이 아니라 세계를 방편으로 삼아 그 세계를 초월함으로 선의 이데아와 동화한다. 바로 이런 자가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나타난다.

## 2) 플로티누스(Plotinus)의 이원론적 일원론

그는 세 원리 또는 위격(hypostaseis)으로 구성된 위계적 구조를 말한다. 즉 일자(一者; to hen), 정신(nous)과 혼(psyche)이다. 혼은 감각계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일상적 삶의 차원을 말한다. 감각하고 추론하고 사고하는 세계이다. 이 위에 보다 통일성을 지닌 정신계가 있다. 정신계에서 지식은 사고의 결실이 아니라 직관의 산물이다. 플라톤의 형상계와 비견된다. 이 위에 절대적으로 단순하고 여하한 이원성도 넘어서는 일자가 있다.

플로티누스는 세 원리의 관계를 유출(proodos)과 회귀(epistrophe)의 과정으로 연결시킨다. 정신은 일자로부터, 혼은 정신으로부터 유출한다. 단순자로부터 다양한 모습이 나온다. 일자는 자기 충만에서 유출시키고, 유출된 바를 다시 자기에게로 회귀시킨다. 육체와 결합한 혼은 육체를 벗어나고, 그 혼은 다시 정신으로, 정신은 다시 일자에게로 회귀한다. 회귀는 관상이 발산하는 욕망의 운동이다. 그런데 이 운동은 상승을 말하지만 기실은 내면화를 뜻한다. 즉 일자를 찾는 것은 자아를 찾는 것이다. 자기 지식과 궁극 지식은 엮여져 있다.

다양한 감각계에 매여 있는 혼은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이 조국을 망각하고 산다. 정화는 감각계의 다양성을 떠나 단순성 곧 일자를 찾는 길이다. 가령 감각계의美는 빌려온 미이다. 감각계에는 미가 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감각계를 넘어가야 한다. 이것은 단순화와 추상화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정화의 결실이다. 혼은 퇴수와 집중의 방식으로 감각계를 극복하고 정신의 세계로 들어간다. 정확로 혼은 본래의 모습, 곧 정신계에 속한 본래의 모습을 체험한다. 그러면 정신계는 자기를 초월하여 일자의 세계를 보며, 영혼은 순간적으로 일자와의 연합을 체험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자가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혼이 스스로를 떠나 일자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일자는 무의식적이기 때문이다. 혼이 정

신이 되는 것도 아니요, 정신이 일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혼의 엑스타시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혼이 일자와의 연합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체험은 말로 이루 형언할 수 없다. 이것은 진정한 귀향이지만 혼은 너무나 생경하여 혼은 공포와 좌절에 빠지면서 다시 스스로 편한 감각계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것은 마치 고독자(孤獨者)가 고독자에게로 도피하는 것과 같다.

일자가 자기를 찾는 자를 의식하지 못하며, 그들을 향할 수도 없다는 것은 은혜 교리와는 너무나 다르다. 이것이 이후 기독교 신비주의와 결정적 차이점이 될 것이다.

### 3) 오리게네스

오리게네스도 플로티누스처럼 혼의 상승을 말하는데, 차이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바가 세례로 효력을 발생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그도 그리스도와 혼의 대화를 말하지만, 이는 수세자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삶을 말한다. 그가 때로는 플라톤주의나 신플라톤주의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자세가 다르다.

그는 성경을 플라톤적 용어로 해석한다. 아가서를 강해하면서 혼이 하나님께로 상승하는 과정을 철학적으로 묘사한다. 윤리적(ethike) 측면은 덕목을 세우는 습관을 정초하며, 본성적(physike) 측면은 만물을 창조주의 뜻에 맞게 사용하게 하며, 검열적(enoptike) 측면은 만물을 넘어 서서 하나님을 관상함이다. 첫째는 잠언에, 둘째는 전도서에, 셋째는 아가에 해당한다. 차례로 정화와 조명과 연합의 길이다.

첫 두 단계는 육체를 혼에 복종시켜 혼을 육체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이원론의 증거이다. 그래야만 혼은 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사실은 죽음 후

에나 이를 수 있다. 어쨌든 오리게네스는 혼과 정신을 구별한다. 원래 모든 영적 존재들은 정신으로서 말씀(Logos)을 통하여 성부를 관상하였는데, 이 복에 겨워 타락하고, 급기야는 혼이 되었다. 혼으로서 육체에 거한다. 이제는 다시 육체를 벗어나 정신이 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성부를 관상해야 한다. 이것은 확실히 플라톤적이다. 그것은 곧 혼의 신적 기원과 동족성을 회복함이다. 타락과 회복은 영계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육신 자체를 수용하기 어렵다.

중기 플라톤주의에서는 이념계가 하나님의 생각들로 표현되지만, 오리게네스는 로고스로 집약한다. 따라서 그의 관상론은 로고스론적으로 정립된다. 문제는 이 말씀과 그리스도의 관계이다. 이것을 기독교론적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약할 수밖에 없고, 전자가 강하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 회귀의 과정을 밟는다.

궁극적인 신(神)은 한 분 성부이시고, 말씀은 성부를 관상함으로 신성을 얻으며, 영계의 존재들은 말씀을 관상함으로 신격화한다. 말씀이 하나님을 알고 관상함에 차지하는 위치는 중요하다. 비록 오리게네스가 성경 말씀 이해에 말씀의 역할을 말하지만, 그는 정신이 신적이라는 플라톤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영혼선재설과 만인 구원론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결국 이단으로 부관참시 당할 수밖에 없었다(553년 2차 콘스탄티노플 회의).

## 2. 신학

관상은 혼과 신성의 동족관계를 전제로 하여 가능하다. 만약 이 동족 관계가 부정되면, 관상은 다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 길을 '무로부터의 창조'가 연다. 이 교리는 아예 하나님과 피조계를 나누면서, 혼과 육체는 피조계에 속했다는 것을 말한다. 게다가 무로부터의 창조가 선한 창조이라면, 오리게네스까지 영

향을 미쳤던 본래적 플라톤주의적 이원론은 일단 극복된다. 혼의 동족은 신성이 아니라 육체이다. 따라서 관상은 신성과의 동족 관계의 체험이 아니다. 놀랍게도 이 전통은 성 베네딕투스에게서 완성된다. 그에게는 관상이 나오지 않는다.

### 1) 아타나시우스

그도 초기에는 플라톤주의자이었다. 초기 작품(Contra gentes)에서 그는 혼이 정신이었다가 타락하여 육체를 입은 영혼(psyche)라고 말한다. 혼은 관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다. 자비의 의지조차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후기 작품(De incarnatione)에서 혼은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타락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적이었다. 타락 후에는 그 정도가 심하여 원형인 말씀의 성육신이 불가피하였다. 우리를 신격화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따라서 관상을 통한 신격화는 없다. 우리의 신격화는 신과 혼의 직접적 관계로부터 해명될 수 없다. 기독교회사에서 플라톤의 영향은 바로 신과 혼의 동족관계와 연속성을 무로부터의 창조로 타개할 때 극복되었다. 말씀은 자기를 낮추어 성육하여 타락한 상태에 자기를 처하게 하신다. 스스로 낮은 곳에 임하는 성육신은 혼의 상승을 통한 신과의 연합을 끊은 계기이다. 혼이 그래도 거울이라 불려질 수 있는 것은 신과의 동족관계가 아니라 정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곧 성령께서 행하시는 신격화이다.

아타나시우스는 말씀에 관하여 말하는 이를 신학자라 부른다. 말씀은 자기 사역, 곧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자기 몸을 바치심으로써 죽음을 멸망시키시고, 자기의 교리로써 인류의 과제를 해결하였다. 이 사실을 그는 “구주의 신학자들”을 인용하면서 논증한다. 그가 여기서 인용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는 성자에 관하여 ‘신학하는’ 요한의 말로부터 피조됨과

태어나십 간의 차이를 논증한다. 성경은 말씀의 신성의 불변성과 표현 불가능성을 고백한다. 이로써 말씀은 ‘신학화된다.’ 즉 하나님으로 선포된 것이다. 아타나시우스는 ‘신학하다’의 수동형을 최초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자주 사용한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것, 그분을 하나님으로 칭함이 곧 신학함이다.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학이다. 신학은 삼위일체론에서 완전하여지기 때문에, 성자를 훼방하는 자는 성부를 훼방한다. 이 문맥에서 아타나시우스는 성자가 성부와 함께 영광을 받으며, 더불어 하나님으로 선언됨을 강조한다. 즉 성자를 하나님으로 칭하는 이는 신학자이며, 이 점에서 요한은 신학자이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님의 신성을 논증한다. 주님이 전수하셨고 사도들이 선포하였으며 교부들이 보존한 보편 교회의 신앙과 교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신학하여지는 거룩하고 온전한 삼위일체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완성을 책임지시는데, 이로써 주님은 우리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와 연결하신다. 성부와 더불어 영광을 받으며, 성자와 더불어 하나님이라고 칭해진다. 성령님은 피조물이 아니며, 성자가 성부와 하나이듯이, 성령님도 성자와 하나이다. 성자를 성부로부터, 성령님을 성자로부터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이 문맥에서 그는 성령님이 성부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아타나시우스는 한 하나님을 삼 ‘위’로 부른다. 하나님이신 성부께서 모든 일에서 영광을 받으시듯이, 성자도 이와 더불어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도 더불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신다.

아타나시우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대로 계시되듯이, 신학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경배이다. 이 점에서 신학은 삼위일체론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부르며 고백하는 것이 신학이



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는 성자와 성령님의 신성을 고백하며 이와 더불어 삼위일체를 고백한다. 신학은 딱딱한 학문이 아니며 신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오직 경배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만 신학이 가능하다. 신학은 삼위 하나님을 향한 송영이다. “신학이 삼위일체론에서 완전하여진다면, 이 신학은 참되고 유일한 경건이며 선이요 진리이다.”

아타나시우스는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신격화를 자주 거론한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 자기 몸을 모두를 위하여 주셨고 우리는 성령에 참여함으로 신격화된다. ... 그분은 몸을 입었다 하여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몸을 신격화시키며 불멸적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는 신격화를 세례와 연관시킨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아들이 된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믿음과 은혜로 우리는 아들이 된다. 범죄로 인하여 불멸성이 차단되었으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는 부활로 불멸성과 썩지 않음을 입으셨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생명을 가진 살아 있는 자들이다. “불멸성과 천국은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함의 열매이다.” 이렇게 신격화와 불멸성은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곧 아타나시우스는 신격화를 ‘신학’의 소재로 사용한 셈이다.

## 2) 닛새(Nyssa)의 그레고리우스(Gregorius)

신과 혼의 동족관계와 연속성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친밀성은 사랑으로만 체험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혼과 동족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에게 자기를 보여주셔야 한다. 여기에 성육신의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이 불가지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흑암에서 아는 것과 같다.

그도 오리게네스(Origenes) 방식을 따른다. 윤리적, 본성적, 검열적 측면을 말한다. 잠언, 전도서와 아가서를 차례로 말하며, 유아기, 청년기와 성숙기도 차례로 말한다. 오리게네스와는 달리 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 연속 단계라고는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불가지자이기 때문에 오직 사랑으로 연합하는 수밖에 없다. 혼이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인 연합에는 이를 수 없다. 혼이 시간계를 벗어나 연합할 수 있는 엑스타시는 없다. 다만 깊은 흑암에로 나갈 뿐이다. 이것이 영혼의 갈구와 뻘음이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영혼은 이 불가지성의 흑암에서 하나님을 관상한다. 이에 만족하면 다시 갈구로 불만이 쌓이고 이런 사태의 연속이 혼의 길이다. 즉 관상은 관상이 아니다. 혼은 흑암 중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식과 현존을 계속 추구할 따름이다.

### 3) 에바그리우스(Evagrius)

에바그리우스는 오리게네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 역시 3단계를 말한다. 즉 실천적, 본성적, 신학적 단계이다. 첫째 단계에서 혼은 덕목을 함양한다. 이는 적극적인 삶보다는 수도자에게나 있는 적막(hesychia)의 상태를 말한다. 사탄이나 정염과 투쟁하는 삶이다. 본성적인 단계는 본성적 관상의 단계이지만 상당히 짧게 다룬다. 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관상이요 지식(gnosis)이다. 또는 간단하게 두 단계, 즉 실천적 단계와 관상, 지식과 기도의 단계인 관상적 또는 영지적 단계를 말한다.

실천적 단계에서 혼은 덕목을 취득한다. 즉 정염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피동성

의 상태(apatheia)에 이른다. 바로 그가 사막으로 간 이유이기도 하다. 사막 교부들로부터 그는 이 아이디어를 얻었다. 혼이 목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c. Jerome), 정염에 휘둘리지 않는 평정의 상태를 말한다. 이 평정은 본성적 지식에 이르게 하는 관문인 사랑을 이룬다. 이 평정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절제하는 믿음과 함께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적막을 찾아 퇴거하는 수도적 삶에서 이를 추구하였다. 생각의 정염을 적막 중에 투쟁하고 다스린다. 이것을 그는 8가지로 열거한다. 폭식, 음행, 물욕, 슬픔, 분노, 태만, 허영심, 교만 등 8가지로 나타나는 악습이다. 이 악습은 서방에 소개되어 7대 중죄로 자리 잡았다(에바그리우스에게 배운 요한네스 캄시아누스(Cassianus)가 서방에 소개하고, 이를 발전시켜 로마 감독 대(大)그레고리우스(Gregory the Great, 590-604 재임)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폭식, 색욕” 등으로 정리하였다). 사실 폭식은 건강을 염려하여 수도 생활을 경시하는 정염을 말한다. 간음도 성욕을 돋우는 성적 환상을 말한다. 반대로 어떤 덕목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평정을 가져와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추구한다.

혼의 욕망적 부분은 기도하는 정신을 흐트러뜨리지만, 혼의 정염적 부분은 기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분노가 마음의 눈을 흐트러뜨려 기도를 망치지만, 판단을 포기하는 인내와 시편 찬송으로 평정을 되찾는다. 혼의 비정신적인 부분을 제어하고 나면, 허영과 교만이 공격한다. 허영은 자신을 기뻐함이요, 교만은 특히 하나님의 관계에서 자족함이다. 이런 것은 다 환상으로서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리하여 평정심에 이른다.

평정심에 이르면, 정신이 자기 빛을 직시한다. 혼이 작동 중지하면 정신이 자유롭게 관상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혼은 피조계 배경에 있는 만물의 원리(logoi)를 관상한다. 이것이 본성적 단계이다. 이것은 곧 로고스(말씀)의 정신에 들어감

이요, 비물질계에 들어감이다. 곧 혼은 스스로가 물질계가 아니라 비물질계에 속한 자기의 본성 곧 정신임을 안다.

혼이 자기를 정신으로 파악한 다음 단계가 신학이다. 이제 혼은 본래의 모습 곧 정신으로 회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관상한다. 이는 대상적 지식이 아니고 정신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지식이다. 하나님은 가지적이다. 그에게는 부정신학이 없다. 이점에서 그는 확실하게 오리게네스를 따른다.

신학은 기도의 영역이다. 기도는 활동이 아니라 상태(katastasis)이다. 정신의 본성은 기도함이다. 평정은 기도를 위한 대전제이다. 평정은 기도의 상태는 아니다. 기도는 정신과 하나님의 교제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영혼에 하감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혼은 신학자이다.

### 3. 신학과 이원론

플라톤 사상은 물질계와 비물질계, 감각계와 (비감각적인) 이데아 또는 정신계를 말한다. 이 이원론 또는 이원론적 일원론은 물질계와 감각계, 그리고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을 저급하다고 보며, 혼이 육체를 떠나 비물질적인 이데아계에서 궁극적 실재를 직시하고 연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이원론에서는 혼의 퇴수와 상승이 주관심사이며, 여기에는 혼이 신적이며, 궁극적 실재와 동족관계라는 사상과 이에 대한 관조를 중시한다. 도덕적 덕목은 혼이 거쳐야 하는 신비적 정화 과정이다. 이원론이 신을 거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은 신격화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나 성경에 기초하여 신학은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에서 하감하시고 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한다. 신학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고백하며, 혼이 궁극적 실재와 동족관계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분명하게 말한다. 도덕적 덕목은 혼의

자기 정화의 결실이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이며 어디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목적 자체이다. 이 덕목들 때문에 영혼은 신격화된다. 이리하여 신학은 올바른 삼위일체론을 정립한다.

어중간하게 이원론을 극복한다고 장담하지 말라. 이들이 개인주의적이라는 것도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진지함이나 육체의 사악한 모습에 대한 직시가 우리에게는 없다. 제대로 된 이원론이라면 고쳐서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이원론을 극복한답시고 나오는 낙관론은 고칠 재간이 없다. 차라리 이원론 자라면 영성에 집중하고 영성에 삶 전체를 건다. 그러나 어중간하게 이원론을 비판하면, 차지도 덤지도 않은 나태한 기독교가 득세한다. 우리는 이원론을 반면교사로 삼아 영성을 살피고 영성을 함양할 수도 있다.

#### 4. 영성

영성은 성령님의 선물로서 신앙 공동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삶이다(S. Schneider).

a. 교회사에서 나타난 영성 운동에는 개인주의적 특징이 두드러진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는 주체는 개별자이며, 공수도 전통에서조차도 엘리트 집단의 일원일 뿐이다. 이점에서 사람 세계에서 멀리 떠난 수도원 전통이나 특히 사막 교부들의 전통은 그 한계를 지닌다. 성도의 삶은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며, 그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내적 교제, 곧 내재적 삼위일체론이 보여주는 교제이다.

삼위일체론의 선구자들이 다 경건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이 다 교회의 교사였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신학과 경건의 이원론적 분리는 없었으며, 이들은 다 교인들의 교사로서 교회의 현장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다.

신자에게 신비적 삶은 세례적 삶의 개화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교회론적이고 집단적인 신비적 삶이 바람직하다. 교부의 신비주의는 후대의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경험이 아니라 수세자가 교회 공동체의 신비적 교제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체험함이다. 교회와 예배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며, 이것을 떠나 신학도 없으며, 영성도 없다. 이 경험이 없거나 희미하다면, 영성 운동은 ‘도 닦는 것’이나 템플 스테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우리 개신교의 약점이 절로 들어난다.

b. 신학과 영성의 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 또한 서방교회가 직시하고 극복해야 하는 이원론이다. 신학이 바로 영성이어야 하며, 영성이 아닌 신학도 있을 수 없다.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언설이지만, 하나님을 대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물건과 같은 대상이 아니라, 삼위로 계시는 ‘인격’이다. 신학의 대상은 동시에 그 주체이다. 하나님은 주체로서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신지식이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하여 추적하는 탐사자의 입장에서 읽는 것이 아니다. 즉 대상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조작하려는 주체로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1인칭으로서 3인칭인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은 언제나 1인칭으로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2인칭으로서 그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는 기도 중에 대상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만난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교제이다. 기도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면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오셔서 자기를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기도는 여타 종교적 행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총체가 기도에서 이루어진다.”

기도가 지닌 교제의 성격뿐만 아니라 찬송의 측면도 중요하다.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불러 찬양하는 송영은 말하자면 객관적인 표현이다. 그렇지만 이런 표현은 단순한 객관적 표현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자면 ‘자기 부인’ 이요, ‘자기 제사’이다. 송영에서 ‘나’는 제물로 바쳐진다. 송영은 찬미 제물이요 자기 포기이다. “신학은 영적이고 지성적인 찬송의 방식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제사드림이다. ... 또 신학의 목적은 인간적 지혜의 변증도, 이단에 대한 대답도, 우리 믿음과 생각을 고백적으로 기술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합리적인 감사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만유가 되시는 것을 기도로 체험할 수 있다.

신학은 기도의 구조를 지니면서 송영일 때 바람직한 모습을 취한다. 신학도 찬미의 제사여야 한다(히 13:15). 성경의 계시는 이성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을 지니고 있다. “전체적인 예배는 영적 차원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신학적 반성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기도의 법은 믿음의 법이다.” 학(學)은 학이로되 학만이 아닌 지혜요, 또 이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이성만으로는 별거송이가 될 수 밖에 없는 로고스, 이것이 신학의 길이다. 이성이 자기를 믿음 안에서의 합리성으로 이해할 때 신학의 신학적 특징이 드러난다. “삼위일체론은 궁극적으로는 사고(思考)의 방식으로 드리는 송영이다.” 그러면 신학과 영성은 연합한다.

영성은 고대교회가 말한 신격화의 다른 이름이다. 송영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점차 그분으로 차며, 그분을 닮고 그분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께서 만유의 만유가 되시는 체험을 할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형태의 이원론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자는 예배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교제하며, 더불어 삼위 하나님으로 꼭 찰 것이다. 이 방식을 떠나면 어느 곳에서도 참다운 신학도 없고, 영성도 찾을 수 없다.